편협하고 비판적인 11대 총여 평가글.

11대 총여가 1년 동안 가시적으로 보여준 활동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간지 사업과 강사초청 강연이고, 두 번째는 대동제 기간의 금주, 금연에 관한 캠페인 -즉, 대동제 사업- 이며, 세 번째는 하등 쓸모 없는 연세여성의 재발간이지요

I. 오리엔테이션 사업

가장 먼저 모반과 Beyond, 그리고 동쪽과 함께 한 간지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과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으며, 뭐 어차피 벌려져 있긴 했지만, 총여와 자치단체간의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인터내셔널'의 대표인 김선우씨를 초청해 강연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확인조차 할 수가 없군요.) 일단, 그 강사의 초청 기준부터가 문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여사업가'라는 이유 이외에 그 분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간지 사업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대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간지를 끼우고 다니는 신입생도 심심지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총여에서 만든 것은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없군요.

II. 대동제 사업

뭐니뭐니 해도 대동제 기간의 금연, 금주 캠페인을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그나마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텔레토비를 배경으로 만든 '담배 싫어, 싫어, 술 싫어 싫어'였던가요? 이 팩을 많은 이들이 -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폭력 반대 팩보다는 많이 봤거든요-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99들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텔레토비가 예쁘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몇몇 있더군요. 음.. 총여가 당시의 선풍적인 텔레토비의 인기를 매우 잘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하는 찻집을 열었던가요? 어머니와 함께 오면 20%를 할인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으윽.. 또 죄송합니다. 제가 총여의 사업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니, 다 기억과 추측에 의존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보기에 그리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연, 금주 캠페인은 이야깃거리로는 꽤 자주 등장한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했는지는 미지수이군요.

III. 연세여성 재발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세여성을 재발간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말이지 신문의 기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편집에(신문방송학과생으로서 그래도 주워들은 것은 있거든요) 전혀 일관성 없는 기사들, 게다가 순결 운운하는 기사 내용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야한 옷차림을 삼가자는 권고성 문구까지 오오.. 놀랍기도 하여라. 1학기에 한 번 발행되고, 바로 얼마 전에 한 번 발행되었는데, 1학기 것은 16면, 이번 것은 8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학기의 신문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는데, 16면 올 칼라에 광고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더군다나 빈 공간은 왜이리 많은지.. 글씨가 있는 면보다 공란으로 비어 있는 면이 더

많더라구요. 결국, 총여가 돈을 쓸데가 없으니, 이따위 것에다 돈을 쏟아붇는구나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든 신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것은 더더욱 가관이었던 것이, 자치단체들이 학교와 피터지게 싸워 이루어낸 투쟁의 성과를 '마치' 자신들이 해낸 양 써놓았다는 점입니다. 모반에서 반박자보를 썼던 것, 다들 알고계시겠지요. 게다가 두입술이나 beyond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문구들은 저 역시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beyond에서 1학기 연세여성에 대한 비판자보를 썼었지요.) 사실, 연세여성이 그리 많이 배포된 것 같지도 않고, 본 이들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고깝게 보인다고 말해주더군요. 연세여성의 재발간은 그네들에게는 별로 득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약을 지켰다는 변명은 할 수 있겠지요.

그 이외에도, 지금 예산자치제를 시행하려 하는 듯합니다. 제게 연락이 왔더군요. 이번 주 금요일, 예산자치제를 시행한다구요. 선거가 임박해서 자신들의 공약을 후딱 해치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더군요. (제목을 잘 봐주세요. 이 글은 편협하고 비판적인 평가 글이랍니다.) 아, 그리고 바로 며칠전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강연회인지 토론회인지 비스무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성제 폐막날이었지요. 안타깝게도 그 강연회에 간 사람을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세상에 기호오빠가 매우 훌륭한 분석 글을 써 놓으셨더군요. 소근소근방에 한 번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났습니다. 2학기가 개강하고 연세춘추에 학내 여성운동에 관한 특집기사가 나갔었지요. 그 때쯤에 여학생처와 연세춘추와 함께 또 무슨 강연회인가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죄송하게도 제게는 그 강연회(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음.. 이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 11대 총여의 사업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저는 원래 문서 같은 글은 잘 쓰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글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Ⅲ-3. 보수 기독교 선본의 예상전략은?

틈틈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의 얘기는 개인적인 소박한! 예견이며 사실 이정도는 어느 누구도 대충은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지, 약간 정리하고 예상하고 있다면 선거시기에.. 그냥 담담하게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도 노파심일 수도 있지..
그냥,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우리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의 상대가 그네들이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좀 넘어서서 봤으면 좋겠다. 발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글을 써 내려가며 들 수 밖에 없는 한탄과 감정적 흥분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그들의 기본 전략은
1. 올 한해 총여활동에 대한 **변명.**
2.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것만이 대안이지.)**

1. 기본적으로 그들이 여성자치단체들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자치단체들이 드러나게 한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로 한 활동에 대해 그들이 이러저러하게 평가할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 즉, 별로 할말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화살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솔직히 그들이 드러나게 잘 한 것은 없다. 복지부분? 음. 총여의 예산의 대부분을 여학생 휴게실 쇼파두고 거울두고 의견함만들고 설문조사 한 것 그리고 더 개선할 점은 논의진행중이라는 것이지...그리고 화장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이것도 아직 논의진행중. 체육수업환경개선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음..! 즉, 그들은 **학교랑 협상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왔다는 것을 아주 아주 강조할 것 같군. 그리고 **공동세미나실 마련**에 대해서도 말하겠지?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을 만들고 만들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데 말이지..이때는 총여실 공격을 하면 되고.. 무려 1년동안이라 공동세미나실은 없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철거건은 절대 얘기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최대의 약점이니.. 그래도 변명은 하겠지..
이러저러하여 이들은 올해 활동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 같다. 이것을 변명이며.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야겠지... 바쁜척하는 총여를 어떻게 해줄까??? 무시할까???

2. 그들이 이번 포럼 제목 이었는데..그들은 정말 엄신기호의 말대로 그렇게 전략적이었단 말인가... 엄신기호가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그럼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왜 그들에게는 전도밖에 없을까? ----------엄신기호

명청한 질문 - 기독교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1. 우문현답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이 말의 대답은 '당근이다'이다. 또한 그들 역시 이 질문의 답이 '당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 사실 그들은 짐짓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 말의 효과는 그것이 아니다. 질문 그 자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특히 이 질문이 형성되게된 '정치적 기반'을 이야기해준다.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들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에서 여성 운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함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얼마나 교활한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기독교도'들을 자기네 편으로 몽땅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으로 여성주의는 반종교인 스탈린주의와 별 다른 것 없으며, 유물론자들이 되는 것이고 '운동'은 한통속이 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서내에서 여성운동의 근거를 찾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의 목표는 '여성운동은 성서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함이지 성서내에서 그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함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즉 그들은 '여성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질문의 비밀이 이것이다. 그들은 교회안밖 여성운동의 도전에 대해 '복음주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은 '여성 운동'에 대해서 발언하는것이지, 여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적어도 괴롭히고 있는 존재-그것이 남성이든, 가부장제라는 제도이건 -에 대해 발언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성서에 기반한, 그리스도에 기반한' 여성 운동만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옳다는 말은 한가지 점에서는 멍청한 말이고, 두 번째 점에서는 소름끼치는 말이다. 이 말이 멍청하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볼때는 당연히 '성서와 그리스도에 기반할때만 옳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에 기반한 것만이 옳다는 것은 신앙고백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에 기반하지 않은 기독교 여성 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는만 유의미할뿐이다. 그건 집안 싸움에 관계되는 문제인고로, 이쪽에서 왈가왈부하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때문이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에 기반하지 않은 '일체의 여성운동'은 틀려먹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독교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이기때문에 이들은 여성 운동의 '기독교화'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여성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중요하다. 말이야 '기독교 여성운동'이지만, 이들 말의 시작과 끝은 '여성 운동의 기독교화'에 닿아있다. 따라서 당근 '전도'가 여성운동이다. 이들에게는 최소한 여성주의적 전도, 여성적 전도라는 개념조차도 없다. 이걸 시도해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걸 목표로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걸로 뭘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깐. 온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 시점에서 깐다면 우리는 이렇게 깔 수 있다. 전도가 여성운동이뇨? 복지는 어디가고 전도만 남았느뇨? 이것은 단지 이죽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사상/기반에 대한 공격이다.

이들의 주장이 전도로 귀결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윤리/사상에 비추어볼때 여성운동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이들은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 운동이 기독교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봤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착하게 뻣苡틉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천당 못가고 지옥간다는 개신교 논리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여성운동 전도하러 온 것이다. 다음번 글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해보도록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아마 이들의 기독교,믿음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즉, 여성운동을 비판하는 이들의 믿음-복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이런게 필요한걸까?

대충 엄신기호의 글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가 보이지?? 정말 뻔하게도(몇년째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여성운동 하는 애들은 과격한 페미니스트로서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애들이라고 보이게 하려고 엄청 유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애들처럼 보이려고 할것이란 말이지. 여성해방을 위해 남성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은 반목과 투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고 강조할 것이고 상처를 더듬지 말자고 할 것이지...이말에서 드러나듯이 반목과 투쟁, 그리고 상처를 들추어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과격한 페미니스트가 하는 방식이고 바로 상대 선본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할까? 우리는 반목과 투쟁하지 않고 상처를 들추어내지 않는다고 해야할까? 난 개인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솔직히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들이 아닌가..용서와 사랑의 탈을 쓰고 독재와 독선으로 가득찬 ..... 그렇다고 역으로 니네가 더 과격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저 선량한 탈을 보면서....

정리하면, 틈틈은 현 기독총여의 모습을 비판하는 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네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과격한 페미니스트라고 근거를 댈지 모르겠는데..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우리가 상대해야할 대상은 기독총여애들이 아니라.. 갈팡지팡하는 여학우들이지 않을까?

Anti-기독교총여 전략? 음.... 전략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말리지 않을까? 어설프게 손대지 말았으면 한다. 괜찮은 기독교인들을 모두 놓치지 않을까?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자!

무식한 년들.. 어이하여 페미니즘을 여신숭배사상이라고 매도하는지..